

hy, 최저 수수료·정기배송으로 유통플랫폼 입지 다진다

지난달 배달앱 '노크' 서비스 개시 업계 최저 수수료율 5.8% 적용
프레시매니저로 배송 경쟁력 ↑
콜드체인 시스템, 신선식품 특화



배달앱 노크

2021년 사명변경과 함께 종합유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한 hy가 배달앱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유통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배달대행사 메쉬코리아를 인수한 후 첫 행보다.

hy는 지난달 배달앱 '노크(Knowk)'를 론칭하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노크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활동을 지원하는 주문 중개 플랫폼이다. 이용 고객은 상점이 설정한 최소 주문 금액만 충족하면 배달료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의 수수료율이 최소 6.8%에서 최대 12.5%인 것과 비교해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 5.8%를 적용하고 점주들에게 광고비와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는 등 부담을 낮췄다.

고객 만족도를 기준으로 상점을 노출하며 평점은 배달 서비스와 음식을 분리해 운영한다. 아울러 가맹점 홍보 활동도 지원한다. 유명 인플루언서의 상점 방문 콘텐츠를 제작해 앱을 통해 노출하는 방식이다.

현재 강서구에 한해 운영중이며 합리적 운영 방식이 입소문을 타 지역 내 900개 상점이 입점을 마쳤다.

hy는 동네 정육점, 반찬가게 등 소상공인과 협업을 통해 신선식품, 비식품 영역까지 배송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지역 확대도 검토 중이다.



프레시 매니저

/hy

회사는 사업으로 축적한 데이터로 쿨 배송에 감점을 가진 프레시 매니저와 협업 모델 구축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크앱에 자사몰 '프레딧'을 연동해 주문 발생 시 프레시 매니저가 배송해주는 서비스 등을 선보이는 식이다.

hy는 방문판매를 하는 프레시 매니저와 자사몰 프레딧 등 자체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다. 프레딧은 전국 영업점에서 활동중인 1만여명의 프레시 매니저를 중심으로 한 배송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중이다.

프레딧의 성장에는 정기배송 서비스

도 한 몫을 했다. hy 정기배송은 지정일과 배송주기를 선택하면 일정에 맞춰 프레시 매니저가 정해진 장소로 전달해 줘 편리하다. 실제로 첫 해 약 1700명으로 시작한 정기구독 고객 수는 2023년 11월 기준 1만3000명까지 늘어나며 69% 가량 급성장했다.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프레딧 멤버십 가입자 수도 지난해 11월 기준 4만1552명으로 전년 대비 74.3% 신장했다.

배송품질과 합리적인 가격도 강점이다. hy는 출고부터 냉장카트에 이르기까지 배송 전 단계에 콜드체인 시스템

을 적용해 신선함이 중요한 달걀 등 신선식품 배송에 특화되어 있다.

물류센터는 충남 논산, 경기 용인 신갈, 경남 양산, 광주, 대구 등 전국 다섯 곳에 위치해 있다. hy는 배송망 강화를 위해 지난해 9월 논산 물류센터를 준공하고 이곳을 배송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hy는 라스트마일 배송 강자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지난해 4월 배달대행 플랫폼 부릉운영사인 메쉬코리아를 인수했다. 총 인수대금은 800억원으로 메쉬코리아 지분의 66.7%를 확보하고 최대 주주에 올랐다.

hy 관계자는 "노크는 단순 중개 플랫폼이 아닌 hy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모컬 상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거래와 부대정보를 디지털화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무료배달 등으로 배달업들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만큼 후발주자인 hy가 배달앱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낼지 주목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나라셀라-레디큐, 와인픽스 프로모션 진행

'7월의 레드큐' 행사상품 구매 시 레디큐 스틱 레이드 1박스 증정 SNS 댓글 이벤트... 경품 제공



나라셀라가 7월 한달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나라셀라

와인 수입사 나라셀라가 맛있는 숙취 해소제 레디큐와 협업해 와인픽스에서 7월 한달 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오프라인 프로모션은 와인픽스 전지점에서 이달 말까지 진행하며, '7월의 레드큐' 행사 상품 2명 이상 구매시 레디큐 스틱 레이드 1박스(10개입)를 증정한다.

행사 상품은 ▲나해 리슬링 ▲쉴드 샤토네이 ▲돈나푸가타 안펠리아 ▲케이머스 코넨드럼 레드 ▲도마네 고벨스 버그 리슬링 ▲칼 에이베스 위르찌거 뷔르츠가르텐 카비넷 ▲아타 랑기 크립 스페인 피노 누아 ▲샴페인 드 수자 슈벡 더

온라인 프로모션은 간단하게 SNS 댓글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16일까지 와인픽스 인스타그램 내 와픽퀴즈 이벤트에서 참여할 수 있고, 추첨을 통해 1등은 매거진 NARA와 디캔터(1명), 2등은 레디큐 10개입 10박스(5명), 3등은 돈나푸가타 올리브유(10명)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한편 나라셀라는 와인 라이브러리 콘셉트의 다양한 주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와인픽스 청담점을 비롯해 성수점, 송파점, 을지로점, 여의도점, 압구정현대점, 분당정자점, 이케아 광명점, 동탄점, 부산센텀점, 광주봉선점 등 11개 와인픽스 매장과 와인애호가들을 위한 프리미엄 와인 셀러 보관 서비스와 다양한 할인 및 시음행사 등을 제공하는 나라셀라 리저브 1개 매장을 직영 운영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LG화학, '골관절염 치료제' 中 시장 진출

시노비안, 1회 투여 제형 강점

LG화학이 중국 시장에서 의약품 사업을 본격화한다.

LG화학은 중국 파트너사 이판제약이 LG화학의 1회 요법 골관절염 치료제 '시노비안(중국 현지명칭: 히루안 윈)'을 중국 시장에서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LG화학이 지난 2014년에 출시한 시노비안은 히알루론산을 교차 결합시킨 성분으로 무릎 골관절염 치료에 쓰인다. 1회 투여만으로 기존 다회 투여 제형과 유사한 치료효과를 내는 특징을 갖췄다는 것이 LG화학 측의 설명이다.

LG화학에 따르면 중국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에서 시노비안은 무릎 통증 감소 및 관절 기능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또 시노비

안 안전성은 대조약인 다회 제형 히알루론산 주사제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노비안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LG화학은 중국 이판제약과 사업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준비해 왔다. 이판제약은 지난 2019년 8월 중국 현지에서 임상 3상을 시작해 2021년 12월 판매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2023년 4월 판매허가를 획득하고, 약 1년 동안 중국 정부와 협상해 국가 의약품 보험 목록(NRDL)에 시노비안을 등재시켰다.

LG화학이 중국 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치료 선호도 조사에서 설문 참여자 중 87%가 원거리 환자 비율, 감염 노출 환경 최소화 등을 고려할 때 1회 투여 제형은 이점이 있어 사용 의향이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

CJ바사-바타비아, 세계 석학 '과학자문단' 운영

대학교수진·AI 전문가로 구성

CJ바이오사이언스와 바타비아 바이오사이언스(이하 바타비아)가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제약·바이오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인공지능(AI) 기반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개발 기업 CJ바이오사이언스와 유전자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바타비아는 과학자문단(SAB)을 각각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CJ바이오사이언스가 구성한 SAB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국내·외 유수대학 교수진 및 AI 전문가로 이루어졌다. 초대 단장으로는

서울대 의대 김연수 교수가 선정됐으며, 다양한 분야의 신약 임상 전략 수립에 참여한 서울대 장인진 교수도 합류했다.

해외 SAB위원으로는 하버드대의대 암 분야 의과학자 윌리엄 쉐러스 교수를 영입했다. 또 마이크로바이옴과 염증성장질환 작용기전 연구의 권위자인 웨일 코넬 의대의 렌디 롱맨 교수, 글로벌 기업 머크·노바티스·구글 등에서 자문역할을 한 신약개발 AI 전문가 조셉 레허 박사도 영입했다.

CJ바이오사이언스의 SAB는 ▲주력 파이프라인 CJRB-101의 글로벌 임상 전략 수립 ▲후속 파이프라인 R&D 자

문 ▲빅파마와의 네트워킹 및 우수 인재 추천 ▲혁신기술에 대한 인사이트 제공 등 신약개발 전반에 걸친 주요 의사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바타비아도 SAB로 '메사추세츠 주립대 의대'의 광핑 가오 박사를 새로 영입했다. 가오 박사는 30년 이상 바이러스 벡터 분야 등의 연구를 해왔으며,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이전을 10건 이상 수행한 유전자치료제 분야 세계적 권위자다. 기존 바타비아 SAB에는 미 생물 의학첨단연구개발국(BARDA) 자문위원으로 백신 분야 최고 전문성을 보유한 키스 웰스 박사가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대웅제약, 혁신형 제약기업 5회 연속 인증

오는 2027년까지 15년간 위상 유지

대웅제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24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첫 선정된 이후 5회 연속 인증에 성공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간은 3년으로, 대웅제약은 오는 2027년까지 15년 간 '혁신형 제약기업' 위상을 유지하게 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R&D 실적, 해외 진출 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들을 보건복지부가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혁신형 제약기

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R&D 과제 참여 시 가점, 세액 공제 및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대웅제약의 R&D 투자 비중은 2018년 13.0%(1212억원) 대비 3.9%p 증가한 약 16.9%(2031억원)로, 매출 기준 최상위권의 5대 전통 제약사 중 가장 높았다.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2022년 국산 신약 34호 '핵스클루'에 이어 지난해 국산 신약 36호 '엔블로'를 개발 및 출시하는데 성공했다.

핵스클루는 국내 출시 2년 차에 위식도역류질환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5월 기준 누적 매출 1020억원을 기록했다. /이세경 기자